

어학연수 교환학생 수학보고서

1. 기본정보

학과		이름	황*림
파견국가	프랑스	파견도시	파리
파견대학	The American Business School (IGS)	파견기간	2015.08~2016.05
귀국여부	2016.06.02		

2.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파견대학	<p>The American Business School (줄여서 ABS)는 파리 10구 생 마르탱 운하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. 순천향대와 달리 따로 캠퍼스가 조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건물 내에 IGS 그룹에 속한 학교가 함께 강의실을 나눠 씁니다. 마케팅 수업은 본 건물과 많이 떨어진 곳에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, 수업 후에 스포츠 활동이 있어서 스포츠 클럽에 가입한 학생들은 수업 후 클럽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. 전체적인 분위기는 자유롭습니다.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인 학교답게 학교 친구들의 문화도 다양합니다.</p>
수업	<p>제가 주로 들었던 수업은 프랑스어와 마케팅 수업입니다. 프랑스어는 두 학기 내내 들었는데 첫 학기에는 제일 낮은 반이어서 프랑스어에 친숙함을 느끼기 위한 수업이었습니다. 두 번째 학기에는 한 등급 높은 수업을 들었는데 프랑스어를 꽤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어려웠지만 첫 학기 보다 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. 마케팅 수업은 토론식 수업과 사례 분석 과제가 많아서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.</p> <p>교재는 오리엔테이션 이후 Book Sales Day가 열리는데, 이 곳에서 학생회가 파는 중고책을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직접 학생들과 사고 팔 수 있습니다. 또는, 교수님마다 E-book을 구입해도 된다고 하셔서 편한 방법으로 교재를 준비하면 되었습니다.</p> <p>교환학생이 많은 학교 특성상 수업 분위기는 자유롭습니다. 교수님들도 수업 방식이 딱딱하지 않고 각자의 수업 방식으로 가르칩니다. Baber Mirza 교수님 수업을 두 학기 내내 들었는데, 수업을 놓치면 놓친 부분을 따라 올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주고 비 영어권에서 온 학생들을 배려해주셔서 기억에 남습니다.</p>

프로그램 운영	<p>외국인 학생을 위해 사전에 생활 안내와 학교 안내 브로셔를 이메일로 보내줍니다. 총 3일간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는데, 이 때 와인 앤 치즈 파티와 보트 투어 등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.</p> <p>교환학생이라고 해서 따로 상담이나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, 문제가 있거나 수강 관련 궁금한 점이 있을 때 문의를 하면 바로 답을 받을 수 있었고, 학교 내에서 열리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잘 해주었습니다.</p>
------------	--

3. 생활전반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날씨	파리의 기후는 여름 가을에는 한국 날씨만큼 좋은데 겨울에는 비가 자주 옵니다. 눈보다 비가 자주 오지만 한국보다 춥지 않아서 별 다른 어려움은 없었습니다. 겨울에 추우면 라디에이터 틀기보다 수면바지나 수면 양말 신고 있는 것이 더 따뜻했습니다.
안전	제가 지내는 동안 파리와 벨기에에 테러가 있었습니다. 하지만 직접적으로 피해 본 적은 없고 계속해서 경찰이나 군인이 지키고 있어서 안전에 위협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. 소매치기로 유명한 파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매치기를 더 조심해야 합니다.
숙소	학교에서 출국 전 준비할 때에 Housing List를 제공해주기는 하지만, 꽤 비싼 가격이라서 함께 가는 학생들과 함께 집을 구해 지냈습니다. 첫 학기 집은 동네는 위험했지만 네 명이 함께 지내서 서로 같이 적응하면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. 두 번째 학기 집은 파리 중심은 아니지만 비교적 더 안전한 곳에서 지냈습니다. 집을 직접 구하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파리 중개 사이트를 많이 찾아보면 자신의 예산에 맞는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.
식사	식사는 거의 대부분을 집에서 요리해 먹었습니다. 물가가 비싸다 보니 외식하기에는 부담스러워서 마트에서 식재료를 구입해 요리했습니다. 그리고 파리에 한인마트나 중국인 마트가 많아서 한식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. 한식이 먹고 싶을 때에는 한식당을 이용했습니다. 물은 처음에는 마트에서 사서 마셨는데, 나중에는 그냥 수도물 마시고 옥수수 수염차 같은 티백을 이용하였습니다.

교통

첫 학기에는 학교가 가까워서 걸어다녔습니다. 파리에 교통카드가 있는데 학교를 걸어다니다 보니 딱히 필요하지 않아서 두 번째 학기부터 구입해 주로 지하철을 이용하였습니다. 파리에는 지하철부터 버스, 기차 야간 버스 또는 우버 등 다양한 교통편이 있어서 어렵지 않게 다녔습니다.

4. 소요경비 (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) 단위 : 약 1400000원 (약 1000유로)

항목	비용	비고(간략한 비용내역 등)
항공료	약 140만원	1년 오픈 티켓 (KLM 항공)
Fees	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,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.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. 예) University Support Fee, \$3,000	
보험료	약 50유로 (프랑스 현지 집 보험)	동부화재 유학생 보험 (국내에서 구입)
숙소	약 550유로/달	전기세, 가스비 불포함
식비	약 200유로/달	외식을 줄인다면 더 절약할 수 있음
교통비	70유로/달	나비고 카드 (한 달)
책값	15유로 ~ 30유로	
기타1	약 300유로	여행 자금
기타2		
기타3		
합계	약 1000유로	

5. 출국 전 준비사항

가장 중요한 것은 프랑스어 공부입니다. 영어권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 생활을 하려면 기본적인 프랑스어 공부를 해야 하고, 프랑스어 수업을 듣게 된다면 제일 첫 번째 반보다 두 번째 낮은 반을 들으면 더 도움이 됩니다.

출국 전에 공항에서 시내게 될 숙소까지 가는 방법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. 공항에서 파리 시내까지 가는 방법은 다양한데 짐이 많기 때문에 조금 비싸도 한인택시를 추천합니다.

그리고 프랑스에서는 학생들에게 주택보조금을 지원해줍니다. 받는 방법이 어렵고 조금 까다롭지만 집에 따라 꽤 나와서 여행이나 생활비에 보태서 쓸 수 있습니다. 이 주택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서류가 필요한데 미리 준비하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제가 출국 전 했던 일은 휴대폰 장기정지 신청, 프랑스에서 사용할 카드 (비자 또는 마스터 카드) 만들기, 국제학생증 신청이었습니다. 국제 학생증은 여권대신 생년월일 보여줘야 할 때에 필요하므로 만들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.

짐 챙길 때에는 정말 딱 필요한 물품만 챙겨도 됩니다. 화장품이나 옷 같은 것은 현지에서도 한국에서 사는 것처럼 구입할 수 있습니다. 저는 콘택트 렌즈도 현지에서 구입해서 사용했습니다. 수화물 추가하는 것보다 현지에서 사서 사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여학생들은 여성용품 넉넉히 챙겨오는 것을 추천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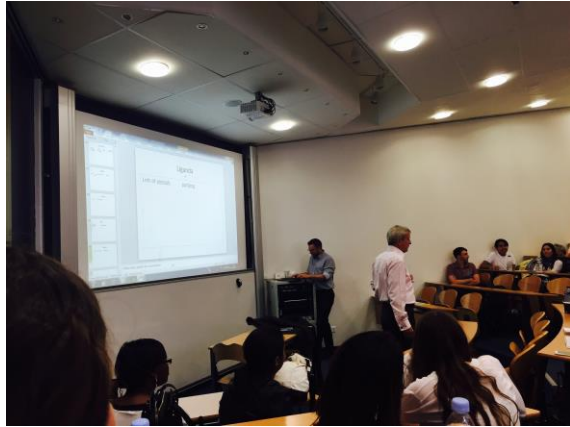
6. 본인 소감 및 평가

일단 저는 프랑스어에 관심이 있고 여행을 좋아해서 프랑스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현지에서 지냈기 때문에 프랑스어 배우는데 도움이 되었고 프랑스가 유럽의 중심에 위치했기에 다양한 곳을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. 학업과 여행을 함께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.

학교에서도 많은 친구들을 만났고 교수님들의 새로운 수업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.

약 10개월간의 교환학생 생활을 통해서 스스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게 되었고 꿈이 더 정확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

7. 사진보고서(6장 이상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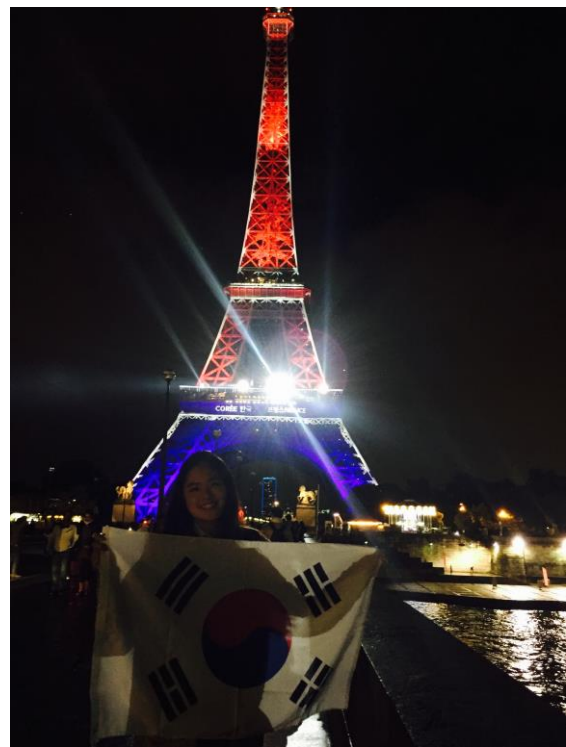
첫 오리엔테이션. 각자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었다.



학교 Integration Day에 학교 전체가 근처 놀이공원으로 소풍을 다녀왔다.



독일의 Stuttgart에서 열린 맥주 축제



프랑스-한국 수교 150주년 기념 에펠탑



처음으로 우리 집에서 열었던 파티



순천향대에 교환학생으로 왔던 친구들과
다시 만나서 즐거웠던 시간